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2호 2020년 3월 2일(월)/계간

발행인 · 김두년 총장 | 발행처 · 중원대학교 비서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은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입학축사

02 김두년 총장

02 이차영 괴산군수

03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

03 이지연 홍보교류실장

03 백태환 총학생회장

Campus News

04 2024년까지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04 괴산군의회 의원 초청 '상호협력 방안 논의'

04 괴산군 지역상생발전 초청 간담회 진행

04 작업치료학과,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04 사회봉사단 해외봉사, 네팔서 나눔과 배려 전파

05 중국 치루사법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 체결

05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

05 2년 연속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 달성!

05 김기수 원우, '2019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05 중원대· 송호대, 교육자원 교류협력 협약 체결

Our story

06 신속! 정확! 우리는 JWU 다이렉트 메시지 DM

– 2020학년도 총학 소개

07 총장님께 말해요!

–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08 잘있어, 중원아~

– 졸업생들의 마지막 인사

09 중원대학교의 디스패치 II

– 홍보대사 '가람'

10 10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

– 타임캡슐 편지

Life in JWU

11 형장을 통장으로

– 중원인 재정관리 방법

12 슬기로운 사회생활

– 나만의 인간관계 관리법

Career

13 너의 노트필기가 궁금해!

13 꽃보다 선배

– 선배들께 듣는 인생 노하우

Freshman Special

14 선배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실!

16 내가 만약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16 우리가 중원대 킹스맨

– 중원인 매너 TIP

17 다 같이 돌자♬ 부서 한 바퀴♪

– 우리 대학 주요 부서를 소개합니다

안전 JWU

18 함께해요~ JWU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9 침착하게 대피하라!

–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19 인싸 탐구생활

– '인싸? 아싸? 그것이 문제로다!'

MADE in 중원 빠송피쌀 3탄

– JWU 패셔니스트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총장
김두년

덕망과 지혜를 두루 갖춘 진정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친애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중원가족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께 중원가족 모두를 대표하여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기까지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대학에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와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는 '해원상생'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야심 차게 개교를 하였습니다. 인성교육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맞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과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입생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먼저 우리 대학의 신입생이 되어주신 여러분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대학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생 여러분께 특별한 축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꿈이 어떤 모습이든지 지금 당장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을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을 했는가는 후일 여러분들 각자가 스스로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이란 지식만을 배우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와 선·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우리 중원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200% 활용하셔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고, 덕망과 지혜를 두루 갖춘 진정한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2020. 3. 2.
중원대학교 총장



괴산군수
이차영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많은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성장을 시작하는 봄의 문턱에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중원대학교는 2009년도 개교 이래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육성이라는 교육 목적 아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품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학해서 학교의 가르침과 보살핌 속에서 세계를 향한 여러분들의 꿈을 중원대학교에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에서도 여러분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괴산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3회 연속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전국 우수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괴산 대표 관광지인 산막이 옛길은 전국 대표 트레킹 코스로서의 명성을 유지해 가고 있으며, 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 쌍곡구곡, 갈은구곡, 선유구곡 등 곳곳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산, 들, 강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관광자원의 보고이며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역사 유적을 기반으로 산림복지단지와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등 명품힐링 체류형 관광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청정지역의 훈훈한 인심과 유기농·친환경 명품 농산물인 감자, 대학찰옥수수, 괴산청결고추, 시골 절임배추, 사과, 인삼, 한우, 양돈 등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도시입니다.

2012년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군을 선포한 괴산군은 2015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유기농복합도시로의 출발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ALGOA(아시아 지방정부 유기농협의회) 의장국으로써 전 세계에 이름을 각인시켜 왔으며, 2022년 제2회 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를 통해 친환경과 유기농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고 중요한 자산이 될 미래 먹거리 생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드림타운, 봉도레언덕 등을 조성, 괴산의 젊은 인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 문제 해결과 청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청년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있어 아름다운 청정 자연환경을 간직한 괴산에서 선후배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일생 중 학창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뚜렷한 목표와 명확한 비전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언제나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의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대학생활에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쉬운 길보다는 올은 길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괴산군민이 된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괴산군의회 의장
신동운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고 가슴 뛰는 상황과 순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기운이 활기를 느끼게 하는 봄날에, 설렘이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과 꿈을 안고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시는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입학을 통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자신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때를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지난 고교 학창 시절의 교과서적인 학습에서 벗어나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대학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로서 많은 발전을 이뤄가는 여러분이 되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인생 전체를 성공으로 이끌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도전하시고 가슴 뛰는 상황과 순간을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현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쳐야 할 과정을 즐겁게 해 나간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통해서 맞닥트릴 난관들도 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젊음에 가장 아름다운 축복인 희망을 평생의 희망으로 보다 크게 키워 가시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의 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라며, 신입생 여러분 모두 인생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 가득한 대학 생활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교류실장
이지연 교수

다시 스무살 신입생이 된다면.... 중원대에서 당신의 인생은 ing

중원대학교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에 개교 10주년을 보내고 새로운 20주년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결과 충북지역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의 1위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을,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과 훌륭한 인성을 갖춘 그리고 졸업생의 리더십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대학,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항상 새롭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원대학교가 찬란한 전통에만 의지하는 대학이 아니라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발전해온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스무살 신입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의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을까?'

저의 스무 살의 모습은 '자신감 없이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기 바쁜, 좋은 학점 받기에 바쁜, 남들 하는 것에 따라가기 바쁜 학생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치열하게 질문하고 내 미래를 상상하라, 그리고 분야별 멘토를 만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일본사람들이 관상어로 키우기도 하는 코이(koi)라는 잉어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물고기는 작은 어항 속에서 자라면 10cm도 안 되지만, 커다란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게 되면 놀랍게도 1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숨 쉬고 활동하는 세계가 어떠한가에 피라미도 되고 대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서 자라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중원대에서 당신의 인생은 ing'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완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현재 진행형 인생"입니다. 중원대에서 재능과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경쟁력 있는 분야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최초의 순간은 짧고 최고는 길다'라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기회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의 성공은 무수한 실패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학성적은 완전히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은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대학 4년 동안에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일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새로운 20년의 금자탑을 쌓을 우리 대학의 첫 발을 내디딘 신입생 여러분!

때로는 조금 돌리고 방향을 못 잡고 헤매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학문적 지식을 가진 지성인'으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 남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전문가가 되었으면 더욱 더 좋겠습니다.

중원대에 입학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몇 배나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남선녀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장
백태환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제9대 총학생회 'DM' 학생회장 백태환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고 큰 지혜와 희복의 해를 맞아 신입생 학우 여러분들도 모두 지혜롭고 밝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중원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밤낮으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며 오직 여러분의 성공만을 위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 새로운 세상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제 처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낄 설렘과 또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총학생회 DM은 여러분들의 선배이자, 같은 학우로써 수많은 난관과 시련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면 더 빠르고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불안감이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두려움 없이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는 경험의 바다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헤엄쳐나가는지, 어떻게 파도를 타는지에 따라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인생 그 자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원대학교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발판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도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주는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2024년까지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



▲ 우리 대학이 한국대학평가원으로 부터 대학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했다.

우리 대학이 교육부 지정 대학평가 인증기관인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으로부터 대학기관평가 인증기준을 충족해 2013년 1주기에 이어 '2019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획득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교협이 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해 대학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했으며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대학은 6개 필수평가준거(전임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를 포함한 △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 △교직원 △교육시설 및 학생지원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의 5개 영역 평가 준거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최종 인증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2020.1.1.~2024.12.31)이다.

대학기관평가 인증결과는 정부의 각종 행·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대학선정을 위한 객관적 정보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교육의 질 보증과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 및 개선체제 구축으로 대학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년 총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우리 대학이 우수한 교육의 질을 보유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하였음을 공인받은 것"이라며 "이번 대학기관평가 인증 획득을 발판 삼아 앞으로 대학경쟁력 제고는 물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괴산군의회 의원 초청 '상호협력 방안 논의'



▲ 교무회의실에서 괴산군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 대학이 지난 2월 12일 교내 교무회의실에서 괴산군의회 의원들을 초청,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두년 총장과 주요 보직자, 괴산군의회 신동문 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 사무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관-학 간 상호교류와 발전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두년 총장은 "중원대는 괴산군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괴산군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사회단체들과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문 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관-학 협력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군의원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편집부)

괴산군 지역상생발전 초청 간담회 진행



▲ 괴산군 초청 간담회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 대학이 2월 17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괴산군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두년 총장 및 주요 보직자, 괴산군 이차영 군수를 비롯한 주요부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원대와 괴산군이 상호 교류 및 발전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참석한 양 기관 관계자들은 간담회를 마친 후 만찬을 가지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김두년 총장은 "군정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도 중원대를 방문한 이차영 군수를 비롯한 군관계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괴산군과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작업치료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



▲ 작업치료학과가 국가고시 100% 합격 쾌거를 거뒀다.

작업치료학과(학과장 신수정)가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한 2019년도 '제47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에서 졸업예정자 34명 전원이 합격했다. 제47회 작업치료사 국가고시는 전국 총 2116명이 응시, 91.1%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중원대 졸업예정자는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임상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의 실무중심 교육과 다양한 기관의 임상실습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교육의 성과로 분석된다. 중원대는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교육인증과 한국작업치료교육인증 최우수 등급을 동시에 획득해 작업치료 교육에 대한 인정을 받은 바 있다.

신수정 학과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실습수업과 봉사활동이 학생들의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었으며 국가고시를 대비한 교수진의 지도와 모의고사 시행 등 학과의 지원도 이번 성과의 결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인성과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작업치료사 양성에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작업치료학과는 의료보건 산업의 환경 변화에 '발 맞추어' 감각발달재활사, 보조공학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겸비해 졸업생의 다양한 취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 (편집부)

사회봉사단 해외봉사, 네팔서 나눔과 배려 전파



▲ 사회봉사단원들이 해외봉사에 임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사회봉사단이 겨울방학을 맞아 1월 6일~14일, 9일 동안 네팔에서 해외 봉사활동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2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이 참가했으며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사전교육을 마치고 매주 1~2회씩 모여 현지에서 실시할 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사회봉사단은 네팔 수도 카투만두에서 약 2시간 떨어진 다딩(Dhading) 지역의 시골 공립학교(AMARKHU SECONDARY SCHOOL)에서 현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체육, 미술, 한국 전통문화 체험 등의 교육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또 노후화된 학교의 도색과 시설 정비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김진관 사회봉사단장은 "우리 학생들과 AMARKHU SECONDARY SCHOOL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봉사활동이 됐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이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량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 사회봉사단은 지난 2017년부터 대년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치며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글로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편집부)

중국 치루사범대학과 글로벌 인재 양성 협약 체결



▲ 중원대-치루대학 양 대학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과 중국 치루사범대학(총장 임송백)이 12월 26일 중국 산동성 제남시 치루사범대학에서 양 대학 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두년 총장, 김현주 국제교류원장, 김철수 대학원장, 김창현 대학원 교육행정 주임교수가 참석했고 중국 치루사범대학에서는 임송백 총장을 비롯한 주요보직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양교는 △교수, 교직원 및 학생교류 △글로벌 인재 연합 양성 △학술자료, 도서출판물 및 교육시설 공유 △대학원 석·박사과정 글로벌 인재 연합 양성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두년 총장은 "중국에서 저명한 치루사범대학과 협약식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쁘고, 학생을 우선하고 글로벌교육을 강조하는 두 대학이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서로 발전해 나아가자"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2020학년도 등록금 동결!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최우선 할 것-


▲ 우리 대학이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고려해 202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우리 대학이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과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2020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이번 등록금 동결 결정은 지난 1월 20일 교직원, 학생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원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대학 본부의 정책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2018학년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입학금 인하를 추진해 온 중원대는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금도 전년도 대비 33%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원대는 올해로 10년째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했으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초 합격자에게는 수업료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성적에 따라 최대 4년간 등록금 전액에서부터 입학 학기 수업료 50%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4년간 생활관 관리비 장학금을 50%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혜택을 제공한다.

김두년 총장은 "오랜 기간 등록금을 인하 및 동결함에 따라 재정 운영 압박이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면서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재정지원사업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우리 대학, 2년 연속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취업률 1위 달성!


▲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9년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우리 대학이 교육부가 최근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2018. 12.31.기준)에서 취업률 69.6%를 기록해 충북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다.

충북 평균 취업률은 62.1%로 중원대는 평균보다 7.5%를 상회하며 2년 연속 1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고용노동부, 병무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공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전수 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자료다.

이번 성과는 재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실무형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취업설명회와 직무적성교육, 자격증반 운영, 기업탐방, 취업박람회, 개인별 상담 등 다양한 취·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온 것이 높은 취업률의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2019년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도내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연숙 취창업지원센터장은 "충북에서 2년 연속 취업률 1위를 달성해 매우 기쁘다"며 "향후 학생들의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김기수 원우, '2019 민주평통 의장 표창' 수상


▲ 대학원생 김기수 원우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받고 김두년(右) 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대학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김기수 원우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공로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김 원우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시 은평구협의회 간사를 맡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으로 지역협의회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두년 총장은 "평화통일 기반조성과 번영에 앞장서 이번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김 원우는 평소 대학원 박사과정에서도 성실한 대학원생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더욱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힘써 중원대의 위상을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김 원우는 "평소 격려를 아끼지 않은 김 총장님 이하 교직원 모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평화통일 확산 활동에 앞장서고, 중원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중원대 · 송호대, 교육자원 교류협력 협약 체결



▲ 김두년 총장(右)과 정참덕 총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우리 대학이 지난 23일 중원대 교무회의실에서 송호대학교와 교육자원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중원대 김두년 총장, 송호대 정참덕 총장을 비롯한 양 대학의 주요 보직 교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 양 대학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相生)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송호대 정참덕 총장이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이란 주제로 중원대 2019학년도 동계 교원 워크숍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정참덕 송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양 대학이 상생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양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학생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년 중원대 총장은 "대학 간 인·물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부)

제22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2020학년도 총학 소개

신속! 정확! 우리는 JWU 다이렉트 메시지 DM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새로운 총학생회의 발걸음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0년 총학생회 'DM'이 중원대학교를 어떤 색으로 물들여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빠르게 전달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DM'이 중원대학교 학우분들께 하고 싶은 말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윤지현 기자 apeach101@naver.com

DM을 소개합니다.

'DM'이란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인스타그램의 다렉트 메시지에서 파생되었습니다. D는 Direct, M은 Messenger의 앞글자를 따온 약자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빠르게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DM이 약속합니다!

첫 번째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에 대한 공약입니다. 먼저 카페테리아 무인 발권기 설치, 본관 여자 화장실 내 (5/10층)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 셔틀버스 충전 방법 개선, 피플카 차량 증대, 각 동의 부족한 정수기 설치, 캠퍼스 안내관 최신화 및 개편, 캠퍼스 내 가로등 개선, 구령대 계단 안정성 개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입니다. 생활관 밍구 스피드게이트 설치 추진 및 점호 폐지, 여자 기숙사 1층 화장실 활성화, 기숙사 휴게실 개선, 기숙사 자판기 교체, 전자레인지 개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교육 및 문화생활 증진에 관한 공약입니다. 교내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야간 읍내 셔틀 노선 확대, 셔틀버스 노선 증설, 비교과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학생회의 청렴에 대한 공약으로 학생회비 사용 내용을 공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총학생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이렉트 메신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학교에 전하는 DM이 될 것입니다. 실망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응원하고 지켜봐 주세요! 항상 곁에 있는 DM이 되겠습니다.



백대환 총학생회장 항공기계공학과 14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포부를 말하기에 앞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신 학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DM을 믿고 뽑아주신 학우분들의 믿음을 등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학교생활 내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의 대변자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학우분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믿고 뽑아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성장하는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부총학생회장 경호학과 15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고, 저는 꼭 학생들의 편에 서서 학생들 견해를 대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학생을 위한 학교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Q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우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만들고 건강한 중원대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불만 사항과 힘든 점들을 찾아 도와드리고, 잘못된 문제점은 딱 포집어 찾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은빈 재정사무국장 보건행정학과 17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절약하며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겠습니다. 지출 예산은 사용 내역을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는 투명한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Q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9대 총학생회 DM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같이 추억할 수 있는 2020년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욱 교육복지국장 항공기계공학과 15학번

Q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5년에 중원대학교에 입학 후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원대학교는 그때보다 많은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휴게실, 문화시설 등 부족한 부분과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완하고자 학생회 임원이 되었기에, 우리가 꿈을 펼칠 수 있는 중원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Q 학우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복지국장으로서 학우 여러분들의 불만사항이나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싶습니다. 언제라도 편하게 건의해주세요.



오예원 홍보국장 경찰행정학과 18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총학생회 홍보국장이라는 직책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학우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내와 교외에서 진행되는 행사나 공지사항들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더 나은 홍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학우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3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정말 축하드리며, 첫 대학 생활의 설렘과 기대가 가득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대학 생활의 첫 시작을 제9대 총학생회 'DM'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지은 기획정책국장 의료뷰티계어학과 17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책국에서는 공약의 실천 방향과 각종 이벤트 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저는 학생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직책에 서 있습니다. 항상 학우분들을 우선시하며 학우분들을 위해 일을 하는 소통하는 기획정책국을 만들겠습니다.

Q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해의 시작점인 1월이 지나고 봄을 맞이하는 시기 3월이 오며 새 학기가 다가왔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학우분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는 2020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철 문화체육국장 경찰행정학과 15학번

Q 앞으로의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국은 여러분들의 축제나 체육대회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학생들이 만족하는 체육대회와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문화체육국이 되겠습니다.

Q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축제 기간에 다양한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을 총학생회 페이지, 혹은 카카오 플러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학생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와 체육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총장님께 말해요!



2020년도 새 학기는 총장님과 학생들의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는 중원대학교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학우분들이 총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아보았습니다.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윤지현 기자 apeshf01@naver.com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최락윤



Q. 학교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관리센터 점심시간이 11시-12시였으면 좋겠어요! 점심시간에 건강관리센터를 방문하면 항상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닫혀있는데, 저처럼 점심시간 밖에 시간이 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건강관리센터의 점심시간을 한 시간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간호학과 19학번 노하은



Q. 학교에 새롭게 바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교에 예쁜 포토존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뮬본 대부분의 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의 재미 중 하나가 친구들과 셀카 찍기예요!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중원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 또한, 플라로이드 대여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공정비학과 15학번 오현택



Q. 총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주말 귀가 버스의 노선을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위주의 버스 노선이 있는데, 지방의 학생들은 귀가 버스를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원주, 강원도 등 버스 노선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공정비학과 15학번 구승우



Q. 총장님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가요?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활동하면서 '지원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더욱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신다면 동아리 활동이 단순 친목의 장이 아닌 또 하나의 배움의 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채지열



Q. 학교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비교과 수업의 시간대를 낮에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오후 6시 이후라서 비교과 수업을 듣게 되면, 개인적인 재정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학업과 비교과에 투자하게 됩니다. 낮에도 비교과 수업을 열어주신다면, 공강 시간을 활용해 들을 수 있어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합디자인학과 19학번 최준하



Q. 총장님 혹은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nglish Cafe, 4층 휴게실 등이 있지만, 조별 과제나 동학생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부족합니다. 공강이나 시간이 남을 때 갈 곳이 없어 주변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는 학생을 보면 안쓰럽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휴게공간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이준혁



Q. 총장님에게 생활관에 대해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생활관 상점 제도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점 제도에 비해 상점 제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벌점을 상쇄하는 방법이 청소밖에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청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점 제도와 이벤트가 늘어난다면, 학생들 또한 생활관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운항학과 18학번 정재홍



Q. 학교가 새롭게 바뀌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잉글리쉬 카페에도 케이크나 허니브레드 등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를 판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별 과제를 하거나 공강 시간 때에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디저트 메뉴가 적어서 선택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다양한 디저트 메뉴가 늘어나서 선택의 즐거움과 맛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습니다!

항공정비학과 15학번 한수환



Q. 학교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이 있으시다면?

당구대와 탁구대를 재설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년도에는 시험 기간에 친구들과 함께 탁구를 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했지만, 15년도부터 탁구대와 당구대가 사라져 정말 아쉬웠습니다. 학생들의 즐거운 취미 생활을 위해 당구대, 탁구대 등 문화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2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졸업생들의 마지막 인사

잘있어, 중원아~



지난 2월 28일, 2020학년도 졸업생들이 졸업했습니다. 졸업한 선배님들 이제 곧 더 큰 사회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졸업하는 소감과 앞으로의 각오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지도해주신 교수님들께 드리는 감사 인사도 함께 담아보았습니다.

김경희 기자 xhqi17@naver.com



염인혁
식품공학과
14학번

안녕하세요, 재학생 여러분! 4년 동안 여러 수업, 실습, 기숙사 생활을 한 학교를 졸업한다고 하니 묘한 기분도 들지만,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스러운 기분도 생깁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생기네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 취업을 하게 될 건데 요즘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학과 관련 자격증, 영어 점수, 기타 자격증, 다양한 경험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도 앞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식품공학과 안정좌, 김현수, 김도완, 황태명 교수님! 강단에서 열심히 강의하시는 모습, 때론 따끔한 충고와 조언으로 바른길로 안내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교수님들께 학문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사회에 나가서 더욱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영훈
제약공학과
14학번

안녕하세요, 중원대 학우 여러분 마지막 인사네요. 군대를 포함한 6년간의 대학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좋은 친구들도 생기고,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매우 뿌듯합니다. 하지만 늘 함께했던 친구들과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는 앞으로 미숙한 부분을 다듬어 커리어를 쌓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 '더 멋진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후배들 사랑합니다.

교수님께...
교수님들 6년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전공지식과 진로에 관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향한 도전에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제약공학과 교수님들 사랑합니다.



김정호
경호학과
16학번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3월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학교 본관에 첫발을 내딛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생활 중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었지만 주변 동기, 선배, 후배 덕에 별 탈 없이 씩씩하게 이겨내 졸업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SK 계열사의 보안회사인 ADT캡스 취업에 성공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에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있는 ADT캡스 회사에서 앞으로 더욱더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 저의 다짐입니다.

교수님께...
박영만 교수님, 하정훈 교수님, 송은일 교수님, 최천 교수님, 김은정 교수님, 그리고 그 외의 많은 학과 교수님들, 경호학과 외래 교수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학교생활을 하며 제가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때로는 교수님으로 때로는 부모님으로 대해주셔서 무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이주석
경찰행정학과
13학번

2013년, 대학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중원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걱정도 잠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가까워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졸업하는 저 자신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원하는 바를 이루어서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빛내는 멋진 졸업생이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께...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 항상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며 학생마다 천차만별로 대해 진심으로 걱정해주시고, 많은 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주신 사랑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준희
신재생에너지자원공학과 14학번

제가 벌써 졸업이라니 아직 실감이 나질 않네요.. 처음 중원대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지금 주변을 돌아보면 좋은 동기들 후배들이 곁에 있는 걸 보면 행복한 대학 생활이었지 않나 싶어요.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후배들에게도 '화이팅!' 하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고 싶네요. 제가 전공 자격증 시험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번번이 떨어져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열심히 자격증 공부에 매진할 계획이에요. 내년엔 꼭 취득해서 부모님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요.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6년간 저희에게 전공지식뿐 아니라 바른 인성과 곧기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해 가르침을 주신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올리고 싶어요.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딜 가서든 항상 배려 넘치고 바른 인성으로 담당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최해성
융합디자인학과
13학번

디자인이 너무 하고 싶어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군복무 이후 슬럼프가 찾아와 휴학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많은 격려로 다시 마음을 기다듬고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졸업하게 된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저는 현재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시련을 이겨낸 저에게는 그 시련이 뿌리가 되어 앞으로도 강하게 버틸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의 목표를 모두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2017년도부터 꾸준히 지도해주신 이아람 교수님! 표현은 못 했지만,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각정 앞에 한 겨울에 노래도 불러주시고 항상 챙겨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신 감성도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교수님들의 좋은 말씀 잊지 않고 가슴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예진
연극영화학과
16학번

4년 동안 휴학 없이 타지에서 학교 다니느라 힘든 점도 많았는데 교수님들의 유익한 가르침 덕에 스스로 성장함을 느꼈고,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한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1학년이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하며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벌써 졸업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네요.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항상 겸손하고 자신감 있는 배우로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중원대학교 연극연화학과의 자랑스러운 선배, 인정받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교수님께...
연극영화학과 교수님들! 그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이 깨시지 않았다면 바른 마음가짐과 정신적으로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꼭 훌륭한 배우가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중원대학교의 디스패치 II

Jungwon Reporters



우리 중원대학교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빛내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중원의 아름다운 얼굴, 홍보대사 '가람' 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밝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가람 11기' 앞으로 중원대의 위상을 높여나갈, 애교심과 홍보 '끼' 가 충만한 가람의 모부를 들어보았습니다.

임현준기자 lhj960918@naver.com



홍보대사 '가람'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배재현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지해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박건수



항공서비스학과 16학번 허영희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이지우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이가은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유지현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박수빈

Q 홍보대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현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회장 배재현입니다.



지해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부회장 김지해입니다.



명희



가은



지현



수빈



지우



건수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11기 홍보대사입니다.

Q '가람' 을 소개한다면?



재현 안녕하세요. 저희 '가람'은 2009년 중원대학교 개교 이래 학생홍보대사 1기를 시작으로 현재 학생홍보대사 11기 '가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람'은 중원대학교 홍보대사로 '강'을 뜻하는 순우리말로써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영원히 흐르는 업적을 만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뜻처럼 저희 홍보대사 '가람'은 강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원대학교를 알리는 학생홍보대사 가람이 되겠습니다.

Q 홍보대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해 저희는 학교 홍보대사로써 홍보물 촬영, 입시설명회 및 수시, 정시 박람회에 참여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상담 및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식, 졸업식 등의 학교에서 열리는 큰 행사의 진행을 도우며, 매월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Q 홍보대사를 하며 느끼는 장점이란?



건수 장점은 먼저 학교를 대표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생기고 평소에는 잘 돌랐던 학교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말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학교생활을 남들보다 더 재미있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보다 학교에 대해 잘 알고 학교에 대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 뿌듯합니다.

영희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홍보대사의 장점은 바로 경험입니다. 홍보대사 활동은 대학 홍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 등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홍보하면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생기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면서 저 자신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의 대학 생활에서도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지우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아 정말 유익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러 학부모님과 수험생을 접하면서 누군가의 말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법,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하기 방법 등 저만의 말 그릇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 활동에 임하면서 상대방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가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홍보대사 '가람'으로서의 활동이 이후 사회에 진출했을 때 대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의사 소통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뜻깊은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Q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지해 중원대학교를 대표하는 홍보대사인 만큼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지구반대 쪽 나라까지 학교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웃음) 앞으로 가람 11기의 활약 기대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은 학생 여러분 앞으로 학교 생활하는데 저희 가람이 옆에서 뒤에서 어느 곳에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람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점, 개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 가람을 찾아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현 홍보대사인 만큼 1년 동안 학우분들과 함께 멋진 중원대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며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람의 활약 기대해주시고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이벤트나 행사에 많은 참여 하시고 상품 받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빈 먼저 20학번이라는 새 내기를 맞이하게 된 신입생 여러분께, 힘들었던 입시 생활을 무사히 잘 마치고 성숙한 대학생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원대학교에서의 첫 스무 살, 설레고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후회 없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재학생 여러분, 이번 2020년도만큼은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원대에서의 대학 생활은 저희 가람이 즐겁고 힘찬 학교생활이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가람'이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Q 홍보대사로써의 다짐과 포부는?



재현 학생 홍보대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우리 대학을 널리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 기수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인재들이 학교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보다 더 노력하여 더 많은 인재가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11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건수 홍보대사란 사람들이 중원대학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었을 때 막힘없이 설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중원대학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본다면 알고 있는 많은 정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대사가람으로서 항상 모범이 되고 학교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우 우리 대학, 그리고 많은 재학생을 대표하여 학교를 홍보하는 것이 '가람' 홍보대사의 책임이자 임무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모범적인 언행을 생활화하고 '중원대학교'가 타 대학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그런 홍보대사 '가람'이 되겠습니다.



가은 홍보대사의 자세를 항상 유지하며 홍보대사가 됐을 때의 느낌과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현 중원대 학우분들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여 가람만의 가람이 아닌 중원대학교의 입시생, 신입생, 재학생분들을 위한 가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원대학교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하겠습니다.



지해 학교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인 만큼 다른 사람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 10기를 이어 11기까지 연임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영광스럽고 전 기수보다 다양한 활동을 하며 중원대학교를 알리고 싶습니다!



수빈 정말 하고 싶어 했던 홍보대사가 된 만큼 중원대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학교를 홍보하고 늘 책임감을 느끼고 활동하겠습니다.

제22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타임캡슐 편지

10년 뒤 나에게 보내는 편지

과거에 적은 일기나 글들을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과거의 나를 마주했을 때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가끔은 학우분들의 현재 다짐과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남겨 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 학우분들이 지금을 기억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최영민기자 Redcampus@gmail.com

멋진 전문 간호사가 된 다원이에게



간호학과 19학번 변다원

멋진 전문 간호사가 되어 있을 다원이에게! 안녕, 31살의 다원아! 내 이름을 내가 부르니까 어색하다. 나는 과거에서 지금 너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을 텐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해. 원하는 병원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고 싶었던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네가 그때까지 많은 시간을 흘러가도록 그저 방치하지 않았기를 바라. 만일 시간을 방치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너의 시간을 붙잡길 바랄게. 더 먼 훗날 네가 후회하지 않게 말이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 너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지 나는 알지 못해. 하지만 너는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해주렴!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원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말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위해 힘내보자! 사랑해♥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지현이에게



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윤지현

안녕 10년 뒤에 지현아! 네가 벌써 30대를 맞았구나.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열심히 한 영어공부에서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20살의 나는 영어 공부가 정말 힘이 들거든.

지현아! 10년 동안 무엇을 선택했던, 너의 선택이 옳았을 거로 생각해. 많은 고민과 생각 후에 내린 결론이겠지.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진로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도, 아직도 방황 중이더라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구든 자신만의 때와 시간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지난 10년간, 많은 일이 있었을 테지. 졸업하고 힘든 취업 준비의 생활과 사회 초년생의 생활을 겪느라 수고가 많았어. 30살의 지현아! 이 편지를 다시 보게 된다면, 10년 전 네 모습과 열정들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그때 학생기자도 하고 마르바이트도 하고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던 너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또다른 도전을 해보길 응원할께!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상진에게



항공재료공학과 19학번 이상진

상진아, 지금의 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니? 원하는 목표를 향해 잘해나가고 있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처럼 여전히 초지일관으로 잘해나가고 있을 거라 믿는다. 처음의 그 마음 변치 말자. 소망과 바람을 마음에 새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으며 끝까지 힘내보는 거야!

민고의 과정을 통해 더욱더 새로워지는 너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해.

지금의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 또, 내 곁에 있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

10년 후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지금처럼 존재하는 주위의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꿈과 열정을 가진 해웅에게



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이해웅

안녕, 10년 뒤의 해웅아! 잘 지내고 있지?

지난날 내 인생의 좋은 추억들을 남겨줬지만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바로 나의 인생에 소중한 기억을 남겨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나는 이 편지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나의 열정과 의지를 담아 보낼 테니, 그 열정과 의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찾아줬으면 해. 나는 미래의 해웅이가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동안 네가 이루려는 목표가 허상이었거나 한낱 계획에 불과했다고 해도, 혹은 이미 실현했거나 아직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도, 꿈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가자!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한 재현이에게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배재현

안녕 미래의 재현아, 나는 지금 2019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며 2020년 계획을 써보고 있어. 일 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느라 많이 지치기도 했고 삶이 마음대로 안 따라 주는 바람에 힘들기도 했지만, 나의 간절한 꿈을 이룬 미래를 상상하면서 부푼 기대를 안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보냈던 것 기억나니?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미래의 너는 꿈을 이루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 만일 네가 살아가는 그곳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여태 잘해왔듯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으니 어떤 순간이 닥쳐와도 절대 포기하지 말자. 할 수 있어, 너는 재현이니까!

훌륭한 여경이 되어 있을 지원이에게



경찰행정학과 18학번 박지원

오늘은 2019년 12월 1일이야. 나는 곧 필기닥칠 시험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너는 어떨까? 그때쯤이면 훌륭하고 멋진 여경이 되어 있겠지?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어.

지원아, 네가 그때 만약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고 있다면, 이 편지를 보고 새로운 다짐을 하자. 모든 일에 성급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고 열심히 나아가길 약속하자.

안일한 모습은 지금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지워버릴 테니, 훗날 네가 이 편지를 볼 때 한층 더 성숙하고 감인해진 너를 보여줘!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주신 기금은 학교 전략사업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중원대학교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주신 기부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부 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국민 615801-04-211393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71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 문의처 | 전화 (043)830-8071 (중원대학교 비서홍보팀) / 팩스 (043)830-8079

중원인 재정관리 방법

텅장을 통장으로



20대는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나 본인이 직접 돈 벌고 모으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기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 조금씩 혼자 해 볼 수 있는 재정관리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세세하게 신경 써서 우리의 텅장을 통장으로 만들 수 있는 든든한 습관 만들어 볼까요?

* 사진모델 :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강미정 / 김유진 기자 dkjj486@naver.com

용돈 주사용처

설문 조사 결과 학생의 용돈 지출 비중 중 식비 5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쇼핑(14.4%), ▲문화생활(6.7%), ▲교통비(6.6%), ▲음주(5%)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비싸진 물가'로 최근 용돈의 규모나 지출이 더 많아졌다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용돈 출처

용돈의 출처 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절반이 "일부를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일부는 직접 마련한다." 고 응답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마련했다는 응답은 26%, 부모님께서 주신다는 응답은 가장 적은 25.3%로 나타났습니다. 용돈의 100%를 부모님께 의지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 중원인들은 자립성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용돈으로 통통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택시? 다 함께 타자!



읍내까지 나갈 때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버스 시간을 맞추지 못했을 때는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야 하는데요. 중원대학교에서 읍내까지의 택시비는 4,000원입니다. 별생각 없이 쓰는 교통비를 한 달간 모아보면 보통 비용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친구 3명을 더 모아서 각자 천 원씩 지출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통비를 알뜰하게 절약하여 봅시다~!

2 텀블러 이용하기



우리 대학 안에 있는 중원카페에서 텀블러를 사용하면 쿠폰 스탬프를 하나 더 찍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할인이 되는데요, 일회용 컵을 줄이자는 취지로 텀블러를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에코백 사용, 화장품 공병 수거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갑뿐만 아니라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함께 동참하는 건 어떨까요?^^

3 식비를 줄이자



학생들이 가장 큰 비용을 소비하는 식비! 외식과 배달 음식을 생활화하다 보면 한 끼에 7,000원은 기본입니다. 그와 달리 학식과 컵밥은 3,5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식비를 줄이고 싶다면 학교 식당과 컵밥을 이용하여 끼니를 해결해보세요. 또한, 게스트하우스와 한국관에서는 재학생들에게 가격 10% 할인, 중원카페에서는 스탬프 쿠폰과 같은 혜택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여 지갑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 봅시다!

4 지출 예정인 돈은 미리 빼놓기



가족이나 친구의 생일이나 여행비를 예상하지 않고 사용한다면 용돈을 받기 전까지 돌돌 굶는 신세가 되고는 하는데요. 핸드폰과 교통비 같은 꼭 필요한 고정 비용은 빼놓고 남는 돈으로 식비나 잡비를 이용하면 됩니다. 꿀팁을 드리자면 핸드폰 가계부 어플을 이용해보세요! 내가 어떤 금액을 썼는지 바로바로 작성할 수 있고, 카드는 결제 시 문자가 오면 자동으로 기록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본인의 돈 흐름을 아는 것만큼 재테크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은 없습니다!

5 영수증 챙기기



영수증을 챙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계속해서 과소비하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영수증을 챙긴다는 것은 나의 소비 현황을 제대로 알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다음 경제생활을 계획한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했던 분들이라면 계획적인 소비를 위해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6 인터넷 쇼핑 이용하기



온라인 쇼핑몰을 잘 활용하면, 같은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주 사용하는 샴푸, 휴지, 생수 등은 대용량이 더 저렴해서 친구들과 공동구매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필요한 물건이 생겼을 때 바로 가격 비교 후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자주 가는 쇼핑몰 앱을 설치해보세요!

7 담배와 커피를 줄이자



기호식품인 담배와 커피의 가격 역시 적지 않은 돈이 투자되는 품목입니다. 예를 들어 4,500원 정도의 담뱃값을 줄이면 1년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둘 다 몸을 해치는 기호식품이므로 절약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라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담배와 커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마시고 적성에 맞는 건강한 취미생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아보세요~!

8 카드보다는 현금 쓰기



카드 한 장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소액의 현금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출을 카드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카드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아 대구 긁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용돈을 더 알뜰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한 주 생활비를 정해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일주일은 뽑은 현금으로만 산다는 목표를 두고 쓰다 돈이 남으면 마치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든다는 사실!^^

제22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나만의 인간관계 관리법

슬기로운 사회생활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혹시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 자신만의 인간관계 관리법을 소개하는 학생들을 만나보시죠. 고영은 명예기자 koh3408@naver.com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기

컴퓨터공학과 17학번 이예지



저는 본인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반대 의견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옳고 넌 틀렸어!"라고 고집부리면 그 사람과는 서먹해질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고 들어주며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합니다. 혹여나 점말로 상대방이 틀렸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고 그 친구의 생각도 존중해준다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누구나 생각은 다르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가가는 건 어떨까요?

약속을 어기지 않기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김윤아



인간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기 위해선 약속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없어서는 안 되는데 사소한 문제로 그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 시각에 늦는다거나 약속 하루 전 취소를 하는 등의 행동이 잦아지면 상대방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친구와의 만남이라도 약속 시각에 늦지 않도록 항상 여유시간을 두고 준비합니다. 정말 친한 친구라도 약속을 자주 어긴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친구에게 소홀해지지 않기

사회복지학과 15학번 백승민



새로운 환경에 가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기 마련이죠. 인간관계가 넓어지다 보면 신경 써야 할 친구들이 많아져서 옛 친구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에게 소홀해진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옛 친구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부 전화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또 친구의 생일도 잊지 않고 잘 챙겨주며 돈독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새로운 인간관계에만 집착하지 않고 나와 가까운 옛 친구부터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이 진정성을 느끼도록 적극적인 제스처 취하기

항공서비스학과 17학번 박은하



제가 인간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내가 듣고 있다는 제스처를 적극적으로 취합니다. 만약 듣는 이가 건성으로 대답하고 성의 없이 고개만 까딱 움직인다면 말하는 이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기분이 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제스처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고 있다는 표시이므로 온전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단,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주변 사람들을 챙겨주기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김재덕



저는 상대방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배려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도 혼자 하기 힘들었던 일을 도와줬던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든 일을 하는 친구는 도와주고 같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 격려를 받아야 하는 친구가 있다면 따뜻한 말을 건네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준다면 그 배려심에 상대방이 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사소한 것이라도 챙겨주세요.



Helium (He), 2

너의 노트필기가 궁금해!

평소 수업은 빠지지 않고 잘 들었는데, 왜!? 내 노트에는 알 수 없는 글씨뿐인 거지.. 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러다 결국 필기 고수들에게 도움의 손을 뻗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과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노트필기 고수들의 노하우를 공개해보려고 합니다. 고수들의 필기 노하우! 함께 보시죠! 이준학 명예기자 5075379@naver.com

간호학과 19학번 김지연 학생의 노하우

01 부위별로 정리하기



질환이나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가 되는 신체구조들의 생김새나 명칭을 먼저 알아야겠죠? 지연 학생의 경우 글로만 나열하는 것이 아닌 구조나 생김새도 구별하기 위해 그림을 통해 잘 구분해 놓았네요! 이렇게 한다면 시각적인 효과도 있으므로 글로만 적었을 때보다 암기 효과가 배로 증가하겠죠-? 물론 교재에도 그림 자료가 있지만,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꿈으로써 이해가 빠르고 한 번씩 그리다 보면 자연스레 공부도 된다고 합니다. 평소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이런 방법을 통해 필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 키워드별로 정리하기



간호학과 특성상 정말 많은 양의 이론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 혼동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지연 학생은 키워드를 선정하여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 "간호학과란 무엇인가?"라는 키워드를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 즉 "사전적 정의" "법률상 정의" 등을 나열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나더라도 키워드만 보고 빠르게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키워드 밑 소제목 등은 형광 펜이나 볼펜으로 밑줄을 쳐 놓으면 내용의 구분도 확실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Tip. 꼭 암기해야만 하는 개념들은 별표를 치거나 따로 소제목을 붙여 정리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4학번 진재형 학생의 노하우



문과생은 알 수 없는 내용들로 확 차 있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것만 보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분명 A+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이 밀려옵니다!

세부적으로 재형 학생의 필기 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맨 위에 "4장 지중전선로"와 같은 큰 단원명을 적습니다. 교과서로 진도를 나간다면 목차에 적힌 단원명, 뚜렷한 단원명이 없다면 수업 주제에 대해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친구의 필기와 날짜를 비교해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의 중요도를 색깔로 구분하는데요, 중요한 내용을 보통 색이 있는 볼펜이나 형광펜 등으로 필기를 많이 하지만 보통 구분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공부할 때 내용의 중요도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하네요. 재형 학생의 경우는 중요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 설명이나 내용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 드는 내용은 파란색으로,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내용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구분을 지어 필기를 해두면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보더라도 내용전달이 확실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꽃보다 선배

선배들에 듣는 인생 노하우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1학번 김병국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원대학교 컴퓨터시스템공학과를 졸업한 11학번 김병국입니다. 오랜만에 회사 소속이 아닌 다른 명칭을 앞에 붙여 인사하니 어색하네요. 학부 시절 IT 네트워크 분야에 흥미가 생겨 현재 해당 분야에 재직 중입니다.

Q. 다양한 학창 시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재직 중인 분야에 대해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여러 활동을 경험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해당 분야 아르바이트, 인턴, 대외활동, 교육 이수 등 몸으로 겪어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자격증 취득할 때도 경험을 해보니 이해할 때도 쉽게 느껴졌었어요. 또한, 부족한 부분이었던 작문 실력을 키우기 위해 기자단에 입단하여 다양한 글을 써봤던 건 현재 타 업체와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이나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Q. 시간을 되돌려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활동이 있으신가요?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혜택인 교환학생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어학연수 같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부분에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깊숙하게 경험해 봤다면 외국인을 대할 때,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대할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일할 때뿐만 아니라 영어가 필수인 상황을 맞닥뜨리는데 그럴 때 부족한 실력에 대해 속상함을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아요.ㅠㅠ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다양한 것에 도전하고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Q. 본인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 전공을 컴퓨터시스템공학과로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중 군대 전역 후에 네트워크라는 분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는데, 명령어로 제가 어떠한 통신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한창 5G 등 통신의 혁신이 만들어나가는 중이라서 더 큰 호기심이 생겼고 관심을 갖게 되어 직업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어요.

Q. 선배님이 생각하는 중원대학교 장점 말씀해 주세요!

자기 의지만 있다면 다른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기숙사 제도가 잘 되어있고 장학금 제도도 잘 되어서 다른 것 신경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거 같아요. 또한, 지방에 있다 보니 놀 거리도 적어 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점 관리하기도 좋고, 흔히 경험할 수 없는 김장 배추 아르바이트, 고추축제 아르바이트 등 이색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아요.

Q. 꿈을 향해 나아가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을 장해서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조금 높은 수준에 목표를 정해 도전해 보는 겁니다. 어렵다면, 선배에게 아니면 교수님에게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어찌 됐든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책임을 지고 자신의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면 그 또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나가야 합니다. 대학 시절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잘했던 경험도, 못했던 경험도 다 지금의 나를 지탱해 주는 힘입니다. '이젠 다 끝났어... 난 특별한 경험이 없어...'라고 주눅 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가고자 하는 직무를 공부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좌절하거나 멈추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세요! 파이팅! :)

김유진 기자 digi486@naver.com

제22호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선배님께 무엇이든 물어보살!



설레는 새 학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으신가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과 적응하고 있을 새내기들은 더욱더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힘들어하고 있을 1학년 새내기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선배님이 알려주는 중원대학교 생활의 꿀팁을 지금 공개합니다!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간호학과 19학번 이성주

Q. 한 학기를 좌지우지한다는 수강 신청, 너무 떨려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A. 수강 신청에 성공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저도 1학년 1학기에는 원하는 과목은 하나도 신청하지 못한 채 '우주공강'을 만들었답니다. 여기서 꿀팁은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홈페이지는 '중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 아닌, '중원대학교 수강&기숙사입사 신청시스템'*이랍니다. 1학년 때 홈페이지를 잘못 접속해 낭패를 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수강 신청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꿀팁! 내 컴퓨터의 서버 접속이 느려져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상상만 해도 얘가 닮죠? 그때 친구가 대신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해주고 나중에 취소하면 빈자리에 쏙 들어갈 수 있답니다. 또, 우리 학과 학생은 모두 수강 신청이 가능한 전공보다는 피뛰기는 교양 먼저! 윈도우 익스플로어보다 크롬을 이용하기!

*수강&기숙사입사 신청시스템 사이트 : http://haksa.jwu.ac.kr/com/index_sugang.html



의료뷰티케어학과 19학번 김정인

Q. 주말 귀가 버스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말 귀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니카 피센터로 향해야 합니다. 예니카피센터의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두 개의 키계에서 학번을 입력하면, 주말 귀가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액을 충전할 수 있는 페이지가 열린답니다. 그리고 중원대학교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좌석을 선택한 후 예약 버튼을 누르면 끝! 여기서 꿀팁은 버스를 이용하는 날로부터 3일 전에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날짜가 업데이트된답니다. 예를 들어, 11월 30일 날 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11월 27일부터 예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저는 까먹지 않게 알람을 맞춰두고 있어요! 시험 기간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피 튀기게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은 통합정보 시스템과는 다르게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 가능하니, 굳이 노트북을 켤 필요가 없답니다. 주말 귀가 버스의 비용과 승하차 위치 등 관련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스쿨버스에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원종해

Q. 실수로 기숙사 신청할 때 학식을 함께 신청하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A. 본관 1층 학생식당에 가면 정수기 바로 옆에 식권을 판매하는 키오스크가 있어서 이용해 구매하면 된답니다. 한 끼에 3,500원으로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따로 냉장고를 구매하지 않는 한, 끼니마다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음식은 먹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매번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사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때, 학생식당으로 달려가면 된답니다.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박민규

Q. 통학하고 싶은데 교통비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A. 통학하는 학생들은 중원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가 있답니다! 통학버스는 동서울과 청주, 2곳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동서울은 동서울터미널과 중원대학교 총 2곳이, 청주는 청주 가경 시외버스터미널, 청주 북부 터미널, 신흥고등학교, 중원대학교 총 4곳이 정류장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통학버스에 관련한 내용도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스쿨버스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답니다. 또는 교운부(043-830-8153)로 문의 바랍니다.



보건행정학과 19학번 채민경

Q.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건 꼭 있어야 해'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A. 먼저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신입생분들이 학교에 입학하는 계절도 3월이지만 아직 쌀쌀할 거라고 예상돼요. 그러면 기숙사 내부는 엄청 건조하답니다. 하지만 간혹 매우 습한 호실도 있으니, 이 점 주의해주세요! 둘째, 스탠드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 중 하나죠! 12시 이후에는 소등이 원칙이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스탠드는 필수 아이템입니다. 스탠드 없이 불을 켜놓고 있다면, 생활관 지킴이 분들께 딱 걸려서 벌점을 받을지도 몰라요. 셋째, 핸드폰 충전기도 기숙사에서만 사용할 용도로 하나 더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매주 집에 가는데 그런 때마다 충전기를 챙겨가고 챙겨오고 하다 보니 잃어버린 경험이 있답니다. 그리고 넷째,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 없으면 밤을 지새우며 과제를 할 수도 없고, PPT를 만들어서 발표할 수도 없어요. 노트북이 없으시다면 4층 로비 정보검색실에서 과제를 미리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학과 19학번 박대윤

Q. 너무나 멀고도 험한 인싸의 길, 대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인싸용어 다 알려주세요!

A. 생각보다 '우주공감'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우주공감'은 너무 긴 공감 시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에요. 수업과 수업 사이에 비어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마치 우주와 같다는 말이죠! 신입생 여러분들은 에브리타임에 전속하지 않을 텐데요, '에브리타임'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할 수 있는 앱이에요. 수강신청 전에 시간표를 미리 짜보거나 시간표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정보게시판에 대주 학식 메뉴를 올려주시는 친절한 학우분들도 있으세요. 자유게시판에서는 학식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도 하고, 시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한답니다.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을 줄여서 '에타'라고 얘기해요. 에브리타임의 게시판을 이용하다 보면 'ㅈㄱㄴ'라는 내용만이 전부인 게시글들이 많이 보일 텐데, ㅈㄱㄴ는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뜻이에요. 제목에 게시물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는 의미랍니다.



간호학과 19학번 류세희

Q. 학교의 편의시설은 무엇이 있나요?

A. 남자 기숙사 맞은편에 매점이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매점으로 가다 보면 수선실이 있답니다. 기장을 줄이거나 터진 부위를 꿰매야 할 때 요긴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 기숙사 1층에는 미용실이 있어요! 읍내에 나가기는 귀찮고 머리카락은 손질해야 할 때, 한 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또, 미용실 앞에 ATM기가 있어요. 현금이 필요로 하는 세탁기를 사용해야 하거나 갑자기 자판기 음료수가 마시고 싶을 때, 사용하세요!



간호학과 19학번 김여진

Q. 빨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기숙사 각 층에 세탁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세탁망, 세제, 섬유유연제 등이 있답니다.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세탁기 위에 적하있는 방법에 따라 넣고, 세탁이 필요한 옷을 세탁기에 넣은 후 작동을 누르면 끝! 세탁비용은 한 번에 1,000원이에요. 비용이 조금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세탁기로 빨래하고 돈을 나눠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에요. 이불과 같이 큰 빨래는 4,000원입니다. 모두 현금만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지폐 교환기는 세탁실 앞에 마련되어 있으니 10,000원 권만 있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간호학과 19학번 이승빈

Q. 재학 증명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A. 재학 증명서는 본관 2층에 있는 '애니카피센터'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된답니다. 애니카피센터는 재학 증명서를 인쇄할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정말 자주 찾아가야 하는 곳이랍니다. 바로 다양한 수업 자료를 프린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애니카피센터에 들어가서 비어있는 컴퓨터 앞에 앉고, 제출하기 위한 과제물이나 e-class에 업로드된 ppt 수업 자료 등을 프린트하면 끝! 컴퓨터에 들어있는 번호와 일치하는 프린터기를 찾아가면 자신의 출력물이 '짠' 하고 나타나 있을 것이랍니다. 프린트한 종이의 수와 흑백/컬러, 단면/양면을 말씀드리면 가격을 알려주실 거예요. 여기서 꿀팁은 결제 방식에서 계좌이체가 가능하다는 사실! 현금 결제는 동전이 너무 많이 생기고 카드 결제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저는 계좌이체 방법을 애용한답니다.



간호학과 19학번 이지윤

Q. 친구들과 밤새도록 놀고 싶은데 생활관 벌점이 두려워요. 외박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외박 신청은 모바일 기기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읍내로 나가기 전에 외박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우선, 포털 사이트에 '중원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이라고 검색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좌측에 있는 기숙사를 클릭하면 카테고리 안에 '외박 신청'이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서 '외박 기간, 자택 전화, 자신의 연락처, 비상 연락처, 성명 및 관계, 외박 사유'를 작성하고 우측 상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끝! 외박 신청, 까먹지 말고 꼭 하셔야 해요. 외박 신청을 계속 까먹다가는 벌점이 너무 많이 쌓여 퇴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항공서비스학과 18학번 윤지현

Q. 응급상황을 대비해 병원을 미리 알아두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A. 중원대학교학생들이 자주 가는 병원으로는 괴산청모병원과 괴산 서부병원이 있어요. 택시를 타게 되면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기사님께서 데려다주실 거예요. 택시비는 괴산성모병원의 경우에는 6,000원, 서부병원의 경우에는 4,000원 정도입니다. 괴산성모병원은 학교 밑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이용해 가는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른 병원인 괴산 서부병원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근처에 있어 찾아가기도 쉽고, 30분 간격으로 한 대씩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 괴산성모병원 043-830-5400
괴산 서부병원 043-834-8275



신재생에너지자원학과 15학번 김재덕

Q. 카페테리아에 메뉴가 정말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기 메뉴 추천해주세요!

A. 카페테리아의 인기 메뉴 중 1등은 제 입맛에서는 단언컨대 육회비빔밥입니다. 언론장학기자단 JR에서도 가끔 학보에 카페테리아 메뉴에 대해서 인기투표를 진행하고 미술랭 특집으로 학보가 발간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1등도 '육회비빔밥'이었답니다. 육회비빔밥은 항상 있는 메뉴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식 카테고리에 생기는 메뉴에요. 늘 있는 메뉴에서 추천하는 건 '순두부 짬뽕밥' 저의 최애 메뉴랍니다. :-D 치킨은 간장치킨, 양념치킨, 옛날통닭 순으로 인기가 많은데, 정말 모두 하나같이 다 맛있어요! 피자는 감자튀김 피자가 가장 유명하고, 요즘 신흥강자로 바네치킨이 뜨고 있답니다.

중원대학보를 함께 제작할 기자를 모집합니다

go



1. 모집대상	중원대학교 재학생 (학년제한 없음)
2. 자격요건	학점 2.75이상 (신입생은 해당사항 없음)
3. 모집인원	OO명
4. 제출서류	언론장학생 지원서 (지원서는 홈페이지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5. 제출기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추후 공지사항에 공지 E-mail 제출 lhj960918@naver.com (언론장학기자 지원자 '홍길동'의 제목으로 제출)
6. 활동혜택	1. 언론장학금(등록금 50%), 취재비, 명함, 언론기자 장학증서 2. 취업 면접시 스펙 가산점으로 적용되는 기자 경험
7. 신청문의	전화 010-4039-7235(국장) 또는 카카오톡! 날리기

장래에 언론계나 홍보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어느덧 2020학년도의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알찬 대학 생활을 보내기 위한 계획은 세우셨나요? 아직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새내기분들! 여기를 주목하세요! 다양한 학과의 선배들이 1학년때 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학교생활을 하면서 1학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김경희기자 xhql17@naver.com



스포츠지도학과 19학번 최지환

제가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학과 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스포츠 지도자 자격증과 생활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것입니다. 스포츠지도학과는 졸업 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자격증 1개와 민간 자격증 3개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1학년 때에는 다른 학년에 비해 전공 교과과정이 많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는데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1학년 때 너무 놀지 마시고 각자 학과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9학번 임정재

대학 생활의 꽃은 동아리 활동 아니겠습니까? 제가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학과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신입생 때에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습니다. 학과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면 본인이 정한 학과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과 선배님들과 친해질 수 있으므로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적극 추천합니다.



임상병리학과 14학번 김승해

제가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날 생각입니다. 대학 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과 학업 때문에 친구를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1학년 때에는 각종 동아리나 신입생 단체방 등 다양한 학과의 학우들과 친해질 기회가 많아서 이때 많은 친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뿐인 4년의 대학 생활 동안 많은 추억을 만들고, 사회에 나가서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경찰행정학과 17학번 김경희

다시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봉사활동이나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해외 봉사를 다녀왔는데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4학년이라 취업 준비 때문에 대외활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1학년 때 봉사도 많이 해보고 대외활동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연극영화학과 17학번 강형두

신입생 여러분 1학년때 꼭 비교과 많이 들으세요! 저는 이제 4학년이 되어 졸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교과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대학에는 다양한 비교과 수업이 있지만 1학년 때에는 놀기 바빠 비교과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만약 만약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비교과 수업을 들으며 시간도 채우고 저의 역량도 강화하고 싶습니다.



항공정비학과 16학번 신동현

1학년 때에는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추억을 쌓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는 1학년 때 친구들과의 추억이 강의실과 기숙사에서 생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과제나 시험공부를 하느라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어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분명 나중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Manners maketh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중원대 킹스맨 KINGSMAN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있다고 하죠. 우리 중원대 학우분들의 행동은 어떠신가요?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을 다 함께 지킨다면, 우리의 캠퍼스 생활은 서로 간에 웃음꽃만 가득한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저희 JR과 완벽한 에티켓을 장착한 중원인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모델-권세현(간호학과 18학번), 윤지현(항공서비스학과 19학번) / 윤지현 기자 apashf01@naver.com

강의실 에티켓

01 강의 자료를 찍을 때는 '무음 카메라'



요즘은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 스마트폰은 필요한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의 자료와 피피티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설마 아직도 폰너 모드 없이 '찰칵' 소리가 나게 촬영하는 학생은 없으시겠죠? 잠깐 스쳐가는 소리지만 여러 명의 '찰칵' 소리가 겹쳐진다면, 수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니 주의!

02 수업 중 출입을 할 때는 '살금살금'



수업 중 화장실이나, 급한 전화 등으로 강의실 밖으로 나가야 할 경우! 문소리 쾅쾅! 구두 소리 또각또각! 이러한 소음들로 수업의 흐름을 깨버려서는 안 되겠죠? 열심히 강의를 해 주시는 교수님과 열정적으로 수업을 듣는 다른 학우분들을 위해 우리 모두 나갈 때는 '살금살금' 문 열 때는 '조심조심' 주의해주세요!

열람실 에티켓

01 열람실에서는 '폰너모드'보다는 '무음모드'



열심히 공부하는 학우분들을 위해 우리 핸드폰은 '폰너 모드'보다는 '무음모드'로 열람실의 분위기 지키기! 다 함께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요?

02 자리를 맡아두지 말고 '사용할 때 잠 놓기'



잠깐의 외출은 괜찮지만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는 짐을 챙겨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기본적인 에티켓!

기숙사 에티켓

01 전자레인지는 'always clean!'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기숙사 전자레인지. 사용 후 흘린 것은 닦고 쓰레기는 방에서 버리는 작은 실천하나가 기숙사 생활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02 함께 쓰는 정수기, 모두가 절약해



정수기를 이용할 때에는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고, 라면 국물을 버리거나 바닥에 물을 버리는 행위는 NO!

다 같이 돌자 부서 한 바퀴

신입생 여러분! 중원대학교에 와서 다양한 종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입생들이 알아야 할 부서 'TOP 10' 기억해 두셨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방문하세요!

최영민기자 Redcampisa@naver.com

학사업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곳이 있다고?

원스톱 지원센터



원스톱 지원센터는 휴·복학과 같은 학적 변동, 전자출결 앱 등록 및 변경, 졸업과 자격증 관련 업무 등 학생들과 밀접한 학사업무를 운영합니다. 학생 학사 관련 도움이 필요할 때 원스톱 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위 치	M1 4층 로비 중앙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551

학생들의 둥지를 관리하는 곳은 여기야!

생활관 사무실



생활관 사무실은 기숙사 생활하면서 학생들의 불만 사항, 필요사항을 수렴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부서입니다. 기숙사 내에서 생긴 야간 응급상황이나 생활관 상 벌점 관련 문의가 있다면 생활관 사무실을 찾아주세요.

위 치	기숙사 생활관 3층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394~5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교운부



교운부에서는 통학버스와 읍내 스쿨버스 운영 등 버스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전반적인 운영 문의나 버스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아야 할 때는 교운부를 찾아주세요.

위 치	S205 취 창업지원센터 옆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153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아니~ 아프면 환자야

건강관리센터



건강관리센터는 학생, 교직원들의 응급상황 시 응급조치와 후송을 돕고 간단한 질병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며 학교 구성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학교생활 중 간단한 질병에 필요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주의사항 : 심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세요!

위 치	D212 학생 상담센터 맞은편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292~3

책은 마음의 양식! 도서관은 마음의 부페!

학생상담센터



학생상담센터에서는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개인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생상담 센터를 찾아주세요.

*대면이 힘든 성 고충 상담은 온라인상담 가능
(http://counsel.jwu.ac.kr)

위 치	S210 건강관리센터 맞은편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142~5

야! 너도 유학 갈 수 있어

국제교류원



국제교류원은 국외대학이나 기관 협약을 통해 학교 홍보와 유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학생과 유학생을 이어주는 언어교류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싶거나 관련 문의가 있다면 국제교류원을 찾아주세요!

※주의사항 : *학기 중에 교환학생 신청 공지가 몰라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위 치	S302 잉글리쉬 카페 옆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221~4

입영! 예비군 훈련은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직장 예비군 대대



예비군 대대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참가해야 하는 예비군 훈련을, 재학생들의 학업에 피해가 가지 않게 1년에 8시간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학생 예비군들을 관리하고 훈련을 통제하고 꾸립니다. 예비군 훈련 관련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병무 관련문의 사항이 있다면 예비군 대대를 찾아주세요.

위 치	본관 M1 208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191

취·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취·창업 지원센터



취·창업 지원센터는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공해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사전예약 시 취업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에 관한 특강을 듣고 싶거나 창업 멘토가 필요할 때 취·창업 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TIP! *응시료 지원해주는 자격증 시험 신청 프로그램은 예산 소지 시까지 운영되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위 치	S206 에니카페 맞은편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전화번호	043-830-8123~3

책은 마음의 양식! 도서관은 마음의 부페! 학술정보원



학술정보원에서는 책을 구매하고 정리해 도서 대출 및 반납을 도와주고 있고, 전자책과 오디오 책 관리 등과 같이 독서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 관련 문의, 독서실 사용에 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학술정보원을 찾아주세요.

위 치	본관 M1 5층 중앙로비	전 화 번 호	043-830-8204~7
운 영 시 간	평일 0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대학 생활의 꽃은 공모전이지!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는 다양한 유형의 워크숍, 특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강의를 유도하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 학습계획표를 작성하도록 장려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공모전 및 경진대회에 참가하고 싶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찾아주세요.

위 치	본관 M2 403	전 화 번 호	043-830-8133
운 영 시 간	평일 09시~18시 / 점심시간 (12시~13시)		

함께해요~ JWU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은 언제, 어디서든,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중원대학교에서는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를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민·관·군이 함께 수행한 이번 훈련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태우 기자 dlxodn0728@naver.com



▲민·관·군 모두가 집결해 있는 모습이 정말 비장합니다!



▲화재현장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을 보니 존경스럽습니다.



▲훈련 상황이지만 실전같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중원대 학우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자 분장을 하고 열연을 펼친 중원대 학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높은 곳까지 물을 진압할 수 있는 소방차들을 보니 안심이 됩니다!



▲화재 현장에 망설이지 않고 들어가는 인명구조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뱀뱀바바 뱀뱀~바밤~띠리링~우리 학우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들의 미션 임파서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소방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터뷰 여러분 안전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과산 경찰서 조한성 상경

Q. 화재대피훈련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화재대피 현장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일반 차량이 안전상 요인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Q.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나 조언이 있으신가요?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셨으면 좋겠고, 실제 상황이 일어난다면 훈련했던 것처럼 침착하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Q. 훈련 참가한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훈련이라서 긴박감이 덜 했을 수 있지만, 실전이면 더 각박한 상황일 것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고 빨리 알리느냐를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인명 구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피 훈련이 꾸준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산 소방서 김아영 소방사

Q. 화재대피훈련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나요?

저는 화재 진압 대원 역할을 맡았습니다.

Q. 실제 상황이 벌어진다면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선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초기소화가 가장 중요한데 초기소화를 놓쳤을 때는 소화보단 대피 후에 신고하시면 구조 대원이 출동하여 대피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은 난방 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오늘 훈련을 한 소감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이번 훈련을 통해서 대형화재 발생 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 방식이 그려져서 대피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강한 소방관이 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학과 19학번 양유진

Q. 훈련 참가한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훈련을 실감 나게 준비하고 진행해 주셔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욱더 많은 재학생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Q. 오늘 훈련을 통해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초래합니다. 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난다면, 안내해주셨던 것처럼 먼저 호흡기를 보호해줄 수 있도록 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항공기계공학과 16학번 심준섭

Q. 훈련 참가한 간단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참여해보니 이러한 큰 훈련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뉴스에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방관분들의 출동 속도에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셨을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오늘 훈련을 통해 배운 점이 있으신가요?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정도 안에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대피시키고 밖으로 구조가 되면 소방관분들에게 여쭤봐서 밖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119 침착하게 대피하라!



여러분은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완벽히 숙지하고 계시나요?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화재나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 함께 보시고 기억하세요! 사진모델 협조 – 한민혁(신재생에너지학과 14학번)

윤지현 기자 apashi01@naver.com

화재 시 대피요령

01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르고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02 대피 후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03 이동 시에는 젖은 손수건과 옷 등을 이용하여 몸과 얼굴을 감싸고 낮은 자세로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

01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과 머리를 보호하고, 책상다리를 꼭 잡습니다.



02 흔들림이 멈추면 즉시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밖으로 대피합니다.



03 대피할 때에는 엘리베이터 이용을 삼가고 침착하게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04 대피 장소는 공원이나 운동장 처럼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교양수업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의 김창현 교수님 인터뷰



상생교양학부 김창현 교수님

Q.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사실 저는 교양 수업 중에서도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생활관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 헌관문, 각종 가전제품 등 위험 요소도 곳곳에 있고, 우리 대학은 대라석으로 설계가 되어서 겨울철 미끄러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학교생활 속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대피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화재나 지진 등 각종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단을 이용하여 침착하게 내려가 운동장에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못 하게 되면 학생들이 계단에 몰려 우왕좌왕하기 쉬운데 침착하고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덧붙이자면 운동장 스탠드에서 담배도 피우고 활동도 많이 하는 데 스탠드 쪽은 겨울철에 미끄러짐 사고가 잦기 때문에 늘 조심히 행동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인싸 탐구생활

'인싸? 아싸? 그것이 문제로다!'

인싸는 인사이더(Insider)의 줄임말로, 아웃사이더와는 다르게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웃사이더는 아싸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은 인싸이신가요? 아싸이신가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 JR이 인싸 테스트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시작해 볼까요?

김경희 기자 xhqi17@naver.com





줄임말 테스트

1. 만부잘부 ☐ 2. 소확행 ☐ 3. 비담 ☐
4. 복세편살 ☐ 5. 이학망 ☐ 6. 믿거 ☐
7. 오저치고 ☐ 8. 갑통알 ☐ 9. 빠태 ☐
10. 흔듬 ☐

1. 만부잘부 :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2. 소확행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3. 비담 : 비주얼 담당
4. 복세편살 :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5. 이학망 : 이번 학기는 망함
6. 믿거 : 믿고 거른다
7. 오저치고 : 오늘 저녁 치킨 고?
8. 갑통알 :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 해야 할 듯
9. 빠태 : 빠른 태세 전환
10. 흔듬 : 흔란을 틈타



JWU 패셔니스트

MADE in 중원 빠숑피플 3탄

두둥~여러분 안녕하세요~2020년 중원 패션위크로 다시 돌아온 MADE IN 중원 빠숑피플 3탄!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2020년 패셔니스타를 모셔봤습니다. 중원대학교는 훈남 훈녀가 많기로 소문이 자자하죠! 명성에 걸맞게 정말 많은 학우들이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쟁쟁한 경쟁을 뚫고 선정된 패셔니스타 3인을 소개합니다. 변다원 기자 qqw0124@naver.com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레저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신웅기입니다.

Q 패션에 흥미가 생긴 이유가 있나요?

주변의 친한 친구들이 옷을 잘 입는다고 칭찬받는 것을 몇 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옷을 잘 입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를 생각하면서 각종 미디어 매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연예계에서 옷을 잘 입는다고 소문난 배정남 씨와 류승범 씨의 사진과 영화를 보면서 그것에 멋을 느껴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Q '난 이렇게 스타일링한다' 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저의 몸 치수보다 한 치수 정도 여유로운 느낌의 옷과 어두운 색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들고 큰 옷 위주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면서 저만의 느낌을 찾아 스타일링합니다.

Q 학우분들에 추천해주고 싶은 의류 브랜드나 온라인 사이트, 말씀해 주세요.

학생이라 의류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의류를 입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저렴한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거나 다양한 매장을 둘러보면서, 마음에 들거나 가지고 있는 옷이랑 매치했을 때 잘 어울리겠다는 느낌이 오는 옷을 구매하는 편입니다.

Q 자신한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한테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어떤 사이즈가 맞는지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게 중요해요.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 피팅할 수 있는 다양한 옷을 입어보면서 어떤 스타일이 편하고 잘 어울리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황규민입니다.

Q 패션에 관심 가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패션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 운동부였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항상 편한 복장으로만 입거나, 엄마가 입혀주시는 대로만 입었어요! 저의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 건 중학생 때부터입니다. 그때 음악을 처음 시작하면서 힙합 음악에 눈을 뜨게 됐고, 그로 인해 힙(hip)한 분위기의 옷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팝핀을 시작하면서 춤을 출 때 어떤 옷을 입어야 춤선이 더 예쁘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옷에 관심이 생겼죠.

Q 자신만의 스타일링 비법이 있으신가요?

우선 자신의 체형을 알고 그것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옷을 크게 입는 편입니다. 또 색깔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간단하게 상의 색과 신발 색을 맞춘다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가지 색상에 맞추고, 눈에 확 뛰는 포인트 색깔을 조금씩 넣어주면서 입는 것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이 코디해놓은 룩북을 찾아보면서 참고해 입기도 하지만, 때로는 남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옷을 입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자주 이용하는 의류 브랜드나 온라인 사이트가 있나요? 학우분들에 추천해주세요!

광소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 찾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옷들에 비해 큰 핏을 보여주는 '어텐션로우'라는 브랜드를 가장 좋아합니다. 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으로 쇼핑을 할 때는 동묘나 광장시장을 애용한답니다.

Q 패션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우분을 위한 잘 어울리는 코디법 찾기 '꿀팁' 알려주세요.

패션은 '자신의 얼굴 분위기, 체형, 여러 가지 스타일 도전해보기' 이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게 '아메카지 룩이 잘 어울리는지, 스트릿 룩이 잘 어울리는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을 고려해 스타일링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잘 어울리는 코디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스타일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메카지 룩 : 미국 노동자들이 입던 작업복과 일본식 복고풍 패션이 만나 재해석된 캐주얼한 패션 스타일

**스트릿 룩 :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의 유행 패션 스타일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인 17학번 나초은입니다.

Q 패션이 좋아지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패션디자인과를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패션과 디자인을 접하게 되었고, 공부하기 위해 이것저것 다양한 스타일과 브랜드를 찾아보면서 패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저에게 즐겁고 행복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관심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자신만의 패션의 노하우가 가득 담긴 스타일링 비법, 공개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화려한 색감의 옷들이 어울리는 편이 아니라, 주로 블랙으로만 입어요. 그 대신 하나의 포인트만 주는 편이랍니다. 또한, 몸매를 드러나는 라인이 있는 옷보다 박시한 옷을 즐겨 입어요. 즉, 편안함을 우선으로 모던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Q 패션의 세계가 넓선 학우분들이 이용할 만한 의류 브랜드나 온라인 사이트, 알려주세요!

저는 '무신사 스토어'라는 온라인 사이트와 '에이블리' 앱을 자주 이용해요. 원하는 브랜드가 딱히 없을 때는 무신사 스토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해 구매하기도 하고, 깔끔하고 단정한 스타일의 옷이 필요할 때는 주로 에이블리 앱을 통해 구매합니다.

Q 패션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우분을 위한 잘 어울리는 코디법 찾기 '꿀팁' 알려주세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핏을 찾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 후에 본인의 체형을 알아보면서 몸매가 부각할 수 있는 것이 예쁜지, 박시하고 넉넉하게 입는 것이 예쁜지를 파악하면 돼요. 이렇게만 하신다면 어울리는 코디법을 찾는 게 정말 쉬워지실 거예요!

중원대 학우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소개하고 자랑하고 싶은 중원인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페이스북 메시지 중원대학교 학생기자단 JR- Jungwon Reporters

인스타그램 DM jungwon_univ_jr